

문화특이점

부안군, LPG승용차 적법운행 홍보

부안군이 LPG(액화석유가스) 승용차 적법 운영을 집중 홍보했다.

부안군은 LPG의 적절한 수급 및 사용상 안전관리 등을 위해 LPG를 5명 이하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5명 이하 LPG 승용차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고엽제 환자 중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만이 소유·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는 장애인 등 피보호자와 LPG 승용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간 세대를 같이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규에 의거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LPG의 적절한 수급 및 사용상 안전관리 등을 위해 LPG 승용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LPG 승용차 사용 보호자의 세대 분리 등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해경, 표류어선 승선원 구조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4일 오전 8시경 부안군 왕 등도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A호(9.77톤, 낚시 어선) 승선원 2명 전원을 구조했다.

구조된 낚시 어선은 낚시꾼 20명을 태우고 부안 격포항에서 출항하여 왕 등도 근해에서 낚시조업 중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하다가 해경에 신고하였다.

해경은 회항을 원하는 낚시객 13명에 대해서는 경비정에 편승하여 격포항에 안전하게 하선조치 하였으며, 선상낚시를 희망하는 7명에 대해서는 같은 선단 B호에 인계했다.

전현명 부안해경서장은 선박의 기관고장 사고 예방을 하려고 출항 전 사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기관고장 시에는 모든 승객들에게 침착하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가용통신 수단을 이용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복지담당자 역량강화교육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복지업무담당자 80명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12일 ~ 13일 (2일간)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김제시청 전산교육장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례관리 전산교육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소속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례관리에 대한 전반적 과정과 범하기 쉬운 오류에 대해 실례를 들어 전산실습과 사례중심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례관리 역량 강화는 물론 업무 공백을 대비해 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은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원활한 업무처리로 저소득층 주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적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공동면 여성주민들로 구성된 농악단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매주 목요일에는 공동면전문문화생활관에서 두레농악교실을, 매주 화요일에는 칠석경로당에서 마을길그리기와 건강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 공동농악단 지원단체 선정

농식품부로부터 농촌교육문화복지사업 1천만원 지원 받아

정읍시 공동면 '공동농악단(단장 차영희 이하 농악단 11명)은 2016년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돼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단법인 정읍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은종래, 이하 예술동호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농어촌희망재단이 주관하는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에 공동농악단으로 응모 지원단체로 선정되는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 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면 여성주민들로 구성된 농악단은 지난 10일 마을길 그리기 교육을 시작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매주 목요일에는 공동면전문문화생활관에서 두레농악교실을, 매주 화요일에는 칠석경로당에서 마을길그리기와 건강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악단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에는 지역주민 등 관련자를 초청해 발표회도 가질 계획이다.

예술동호회와 면 관계자는 "이번 사

업을 계기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촌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문화 복지사업이 대안 농촌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동호회는 지난해에도 공동면 여성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특성화사업(우리동네이야기)으로 10개월 동안 농악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 농악교실 참여자들이 공동농악단을 창단해 지난 4월 개최된 2016년 정읍시읍면동농악경연대회에 출전,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집중 단속

2개팀 12명으로 구성 2,212개소 표지판·스티커 부착여부 등 점검

김제시 보건소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내 공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경찰서, 의식업협회와 함께 금연구역 등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반은 2개팀 12명으로 구성되며 단속 대상은 공중이용시설(1,888개소)과 금연구역(조례 지정·233개소)으로 총 2,121개소이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된 업소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PC

방 등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이다.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

령에 따라 과태료를 개별 부과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형제섬에 우럭 5만마리 방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산자원 회복 등 위해

부안 서남 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바다목장 조성 수산자원 회복, 어족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10일 조피볼락(우럭) 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용주 박사를 비롯한 (주)한국 해상풍력 관계자, 어민 등 10여 명이 참여, 부안 격포항을 출항해 형제섬 인근을 직접 돌며 우럭 크기 평균 40g(10cm) 5만 마리를 방류했다.

박용주 박사에 따르면 "수산업공존 R&D연구과제 관련 참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서남 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바다목장을 조성하려고 우럭을 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또 "방류어(우럭) 아가미를 모두 절개하여 표지방류함으로써 자원조성의 효과조사, 이동 경로 파악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기반기술

을 접목하여 방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피볼락은 몸길이가 30cm가량인 바닷물고기로 볼락과 비슷하고 몸은 회갈색 바탕에 검은 점이 흩어져 있다.

비위가 많고 수심이 낮은 연안에 서식하며 주로 무척추동물과 어류를 먹고 살며 12-2월에 수정하여 3-4월에 새끼를 낳는 태생으로 우리 나라 전 연안에 서식, 일본 전 해안 중국 등에도 분포 대상으로 양식하기가 가능하며 회, 구이, 전어물, 탕 등의 다양한 요리로 이용되어 회집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어류이다.

박용주 박사는 "이번 조피볼락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어려운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어민들의 어획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코네티카 포니"라는 품종은 온순하고 순치도가 높아 세계 각국에서 재할 숭배, 마장마술, 마차경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목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쁜 망아지가 태어났어요

김제시, 아일랜드서 도입한 번식 승용마에서

김제시가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3월말 아일랜드에서 도입한 번식 승용마에서 새끼가 태어나 주변 축산농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태어난 망아지는 "코네티카 포니"라는 품종으로 온순하고 순치도가 높아 세계 각국에서 재할 숭배, 마장마술, 마차경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목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모색이 희색, 흰색 등 밝은 색으로 어 린이 및 재할 숭배용으로 인기가 높다.

현재 새끼를 생산하고 있는 말들은 김제시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

여 5억원을 투자하여 입식한(14호 23두) 말들로 기전대 마사과 박영재 교수의 지도로 조기 안정 및 환경 적응을 하고 있으며 이중 10두에서 새끼가 태어났으며 나머지 말들도 5-6월경에 새끼를 생산할 계획이다.

김제시 축산진흥과장은 현재 태어나고 있는 망아지들을 모지면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모색이 희색, 흰색 등 밝은 색으로 어 린이 및 재할 숭배용으로 인기가 높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different gift set options with prices.